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홍해작전

홍해를 건넌 후 첫번째 성찬식 오늘 거행 나눔의 센터에 나도 한 몫을

오늘 낮 예배시엔 절제헌금 드려

충헌의 성도들은 제2차 천국 시민 총동원의 날인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 총진군을 하면서 새벽기도회 때, 홍해를 건넌 후 그 첫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배찬이 되는 동안 성도들은 개

인과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도들은 천국시민으로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절제하며, 봉사하는 생활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 15일을 금식일로 삼

고 충헌의 전 교인은 금식을 하면서 홍해작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금식미와 이제까지 홍해작전이 진행되면서 해온 절제로 인한 절제헌금을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에 드리게 된다.

나눔의 센터 내일 개장

내일(18일)부터 이틀 동안 나눔의 센터가 운영된다.

나눔의 센터는 이번 홍해작전 중으로써 힘을 다해 절제하는 생명이 명실공히 천국시민 생활운동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눔의 센터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언 제	6월 18일~19일 의류·학용품·장남감 : 오후 1시~6시 종교·교양서적 : 오후 3시~8시
어디서	선교관 앞마당, 소석관 1층
누 가	충헌의 모든 성도
무엇을	일반성도 : 세탁을 깨끗이 한 각종 의류 유치부·초등부 : 학용품, 장남감 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 1부·청년 2부·직장전도교육부 : 종교, 교양서적
어떻게	물품을 직접 교회로 가지고 나와 교구별로 접수하면 1점당 1장의 교환권을 배부받아 본인이 원하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왜	나에게 필요없는 것을 남에게 주고 남의 것도 내가 받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절제와 사랑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영성 잔치 은혜 중에 마치다

제3차 홍해작전의 닻새제인 지난 6월 10일 저녁 7시부터 12일 까지 3일간 본당에서 천국시민 영성잔치가 개최되었다.

2000년대를 향한 천국의 시민상 정립을 위해 마련된 이 영성잔치는 충헌의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진정한 천국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영성잔치는 천국시민 생활운동의 실천강령에 맞추어 “천국 시민의 경건, 경제, 윤리생활”에 관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성잔치 첫날인 10일은 강사 임 옥 목사(영양교회 당회장)가 강의를 통해 “천국시민은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혼탁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날에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목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날 천국시민의 윤리생활에 대해 강의한 김인수 장로(고

려대 교수)는 “오늘의 갖가지 갈등과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며, 사회의 타락에 대해 교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천국시민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로 결실 맺는 홍해작전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헌교회 곳곳에서 이름없이 봉사하는 이들로 사랑이 넘치고 있다.

이른 새벽에 모이는 성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봉사위원과 안수집사들은 교통정리를 통하여 봉사를 하고 있다.

에스더전도회가 공급하는 충헌차는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새벽기도 후 출근자를 위한 조찬도 매일 아침 루디아전도

회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한전도회, 베드로전도회는 우리 교회를 찾는 영업용 택시 기사들에게는 충헌교회가 아로새겨진 겹과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제9교구 3지회 성도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배추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제3지회 성도들은 낮에 직접 밭에 나가 정성껏 뽑은 배추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교회에 배달하여 교회가 성도들에게 신선한 배추국을 배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일에 사랑의 집 기공, 홍해작전 승전기념 돌성경 봉헌

제3차 홍해작전 진군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20일에는 돌성경 봉헌예배와 사랑의 집 기공예배가 있을 예정이다.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새긴 돌성경을 하

나눔에 봉헌하고, 수요일부예배가 끝난 후 대민봉사의 센터가 될 사랑의 집 건축 기공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삼아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교회학교

각종대회 성황 이뤘

지난 6월 6일 홍해작전의 제1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교육부서가 개최한 각종 대회(글짓기, 그림그리기, 포스터, 현상표어)에 교회학교 학생 589명이 참가하여 글짓기 대상에 이재우 어린이(초등3부-42반), 그리고 그림그리기 대상에 양정수 어린이(초등6부-소망3반)가 각각 차지했다.

글짓기

*대 상 이재우
*최우수상 유연주 우재권 김은정
정하나 권민정
*금 상 전영석 박선우 이소민
조성진 한준혁 이은정
*은 상 민경나 송지은 조영진
권정미 임필아 이미령 박 영
*동 상 정지훈 김유진 강석현
이상급 손은혜 박인정 송에스터
왕경민 김대희 김수희 임성호

그림그리기

*대 상 양정수
*최우수상 양혜선 김 웅 박승은
권신의 임형록 최은진 고유미

*금 상 임정규 임혜림 송은주
김병준 정지영 박지은 김보연 전해진
이종봉
*은 상 김 진 김병조 최지현
이선미 이옥조 최민영 이형주 김성환
이혜연 장경화 이상훈 정미현 김보라
김성훈 박성민 전해진
*동 상 이성봉 전해민 안형민
나수미 이승미 유지혜 하상원 박진경
정다와 장희정 조유정 박지은 조진희
문세영 박유미 김수현 김혜옥 장 훈
문복지 김소라 김현정 이선영

포스터

*최우수상 김 록 김두엽
*금 상 홍지영 김정연
*은 상 박서향
*동 상 임성희 이종원



제3차 홍해작전

이 중 윤 목사

넷째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이 복은 단순히 화평을 가진 자에게나 또는 화평을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시민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은 절제 없는 열심과 편견과 고집스러운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잠 13:10)입니다. 즉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주주의 자식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란 첫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일어났을 때 분쟁의 해결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둘째, 화평케 하는 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셋째,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화평케 하는 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10)

천국시민은 칭찬이나 비난에 동요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를 원수로 삼아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원수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꾀박 가운데 살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꾀박을 받게 됩니다(딤후 3:11).

사람들은 자자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꾀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시민들은 죄값으로 오는 꾀박을 당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벧전 2:19).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꾀박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비고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 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고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벧전 2:20). 즉 악한 자에게 꾀박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의인인 줄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선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날 천국시민의 의무와 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16)

천국시민은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해독제, 조미료, 정결제, 연약의 표시 등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시민인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고통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패에 동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 큰일인 것입니다. 미지근한 곳에서 병균은 더욱 번식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성경도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패를 막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진 세상에서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언행이 주변에 빛으로 비추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빛을 비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을 정립하고 정립된 신앙을 쫓아 생활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천국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마 5:17-20)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 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무시당하는 작은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마 5:19).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

해서 의를 행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식주의를 낳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를 행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므로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깊고 내면적이고 선행한 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령을 내려다보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면적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장사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우리들은 형식만 갖추고 전통을 지키면 구원이 오는 줄 아는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섯째날 천국시민의 생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자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21-26)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집약한 계명 중의 계명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계명 중 제6계명과 제7계명을 결의론적 사상으로 이해하여 말씀의 본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계명들을 재해석하시면서 노를 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시민인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노를 발해서는 아니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는 어느 경우에는 살인이 허용되고 어느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나 전쟁중의 살상은 살인행위가 아닌지라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파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므로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하거나 생명을 없애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제6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건 살인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제6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6계명을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6계명을 살인행위 자체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살인행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불의한 노, 즉 교만한 노, 헛된 노, 미움의 노, 악한 노를 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드리러 가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나 우리들을 송사한 자를 만났을 때는 급히 화해를 해야 하며 불화한 일이 있으면 해 지기 전까지 화해해야 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27-31)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것은 그 눈으로 간음하여 범죄한 것이므로 “네 오른 눈에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마 5:29). 육신 때문에 범죄하여 영혼까지 망해버린다면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인행위나 간음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과 마음과 행동에 죄를 범하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날 결혼의 신실성 말의 진실성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마5:31, 32)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서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한 이혼의 조건에만 초점을 둔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결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모세의 이혼령에 대해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말씀이 결혼 관계에는 제3자의 개입이 허락되지 않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항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부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마 19:6). 따라서 천국시민들은 이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교훈을 분명히 안다면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혼령(신24:1~4)은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잠정적으로 허락한 것이며 본래는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며 모세가 이혼을 권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매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사람이 간음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었습니다(마5:32, 19:9). 왜냐하면 둘로 쳐죽여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음행한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이므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외에는 천국시민은 절대로 이혼을 입에 담아서 안되며 이혼을 해서도 안됩니다.

호세아가 집을 간간 고맬을 몇번씩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이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5:33~37)

모세는 거짓 맹세를 악하다고 하였으며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신23:23)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깨뜨려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부녀질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명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도부지 맹세하지 말지니”(마5:34)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맹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의 진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신10:20; 롬1:9). 다시 말해서 모든 맹세는 진실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천국시민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말한 대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덟째날 천국시민의 의로운 삶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마5:38~42)

보복하지 말라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은 반문화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으로서 천국시민인 우리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시민법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한 법의 바른 집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시민법

을 나라의 법정에서 집행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할 때 적용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 19:18)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시민들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대한 보복은 국가에 맡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시민의 생활이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사랑에 기초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저항주의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여거적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에 대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악한 자란 마귀가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

는 것으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 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 대라는 말씀은 회생과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회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약속을 받은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를 자제하고 타인에겐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3~48)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해야 합니다(시 139:19~2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마5:44).

신약에서의 사랑의 표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희생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중심의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말로써 축복하게 되면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같이 우리들도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함보다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둥같은 장로



남 선우 장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집단이 형성되게 마련이며, 집단이 형성되면 그 집단을 이끌어 내가고 봉사할 봉사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집단의 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자(즉 장로)를 흔히 기둥에 비유한다. 그러면 일반 교인이 보는 기둥, 즉 장로란 어떤 생물이야 할까.

주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건물에 있어서 허락하며 의지해주는 힘이다. 건물은 이 의지에 주는 힘에 의해 지상에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물의 생명은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 제공에 있고, 그러므로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기둥의 위치는 공간 기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우리 교회 예배당은 정면을 향해 막힘 없이 트여져 있다. 그런데 팔일 예배당 곳곳에 기둥이 서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제한된 시계(視界)와 정면을 향한 제야 뻔해에서 오는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럴 때 기둥은 벽면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역의지 않아 기둥을 세워야 한다면 기둥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가리워져 있어야 훌륭한 집회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둥은 오히려 방해물일 수밖에 없다.

장로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의 장로는 더욱 그렇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인정되고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건물에 기둥이 보이지 않아야 하듯이 장로(봉사자)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자신을 숨겨 돌출시키지 않는 봉사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일한 충성의 대상자이시고, 유일한 주

권자이시며, 주인되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란 명예와 재물과 세상 권세를 갖춘 인간을 지칭하는 칭호가 아니라 종의 삶을 철저히 모범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일컫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자기 얼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즐기는 자라면 그는 봉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나 교회의 리듬을 깨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장로는 사랑의 채무를 짐과 동시에, 직능의 영광도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면, 봉사자는 죽어 있어야 하고 그 죽음을 날마다 자랑해야만 공동체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둥과 같은 장로는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다음호 제기등은 서동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충현살롱경로대학 졸업여행기

하나님이 동행한 여행길

박 관 영 장로

충현살롱경로대학 학생 168명은 지난 5월 28일, 졸업을 앞두고 경로대학 학감 송기홍 장로, 장영자 전도사 등 8명의 교사들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다녀왔다.

28일 교회에 모인 학생들은 최인근 목사의 인도로 출발예배를 드린 후 여행길에 올랐다.

고도 9천 미터를 비행하면서 몽개구름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광경과 지상의 경관을 내려다 보면서 50분 동안 비행하여 제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0개반이 반별로 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숙식을 같이 하며 반원간에 친교가 독도하여진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날 버스 4대에 분승하여 관광을 하였다. 여행사의 안내양들이 노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가이드답게 시종 충분한 안내를 해주어서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였다. 관광 가운데 돌보이는 것은 돌고래·바다사자(물개) 쇼와 유람선이었다. 잘 훈련된 물개는 지능이 높아서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각종 경기를 하며 재롱을 떠는 것이 꼭 인상적

이었다.

제주도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공장이 없고 공해가 없는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운 동양의 하와이라고 할 만한 곳이다.

첫날 관광때 일기가 하도 쾌청하여서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

최고령자 88세난 할머니를 비롯하여 80세 이상의 노인이 15명이나 되는 176명의 대부대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은혜인 것을 확인한다. 일행의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연발되었고 동행한 노인들이 “이제는 나도 비행기 타봤어. 제주도 관광을 했어.”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다가 넘어져서 발에 골절상을 당하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번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제3교구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제3교구는 매주 교구 모임 후 소석관 314호에서 찬양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구 식구들간의 친목도 다지고 있다.

창년2부에 소속 되어 있는 박종운 선생의 지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이 찬양시간은 베드로 전도회 주관으로 80~100여 명의 교

구 식구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5월부터 시작한 찬양 공부는 단순히 성경 공과 공부를 위한 교구 모임 차원에서 벗어나 찬양의 시간을 가정으로 타 교구의 모범이 되고 있고 교구 식구들의 반응도 무척 좋아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 제3차 흥해작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작

우리 집 가정예배

이 재 우 (초등3부)

우리 집은 오래 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빠, 엄마께서 새벽기도회를 다녀오시자마자 잠을 자는 나와 동생을 깨워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충현 만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나와 동생은 많은 시간들을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다. 때로는 아빠, 엄마한테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이 좋지 않다고 많은 꾸중을 들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으로 예배에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방학을 하여 대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댁에 가서도 아침 여덟시가 되면 1초도 어김없이 예배가 시작되었다. 할아버지 댁에 있을 때는 혼날까봐 정신을 차려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우리 가족끼리만 모이면 예배시간에 동생과 허죽 허죽 웃고 장난치고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아마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흥해작전

양 설 수 (초등6부)



예배시간에 장난도 하지 않으기로 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라”라는 말씀이 이제는 무슨 내용인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엄마께서 늘 나와 동생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나는 앞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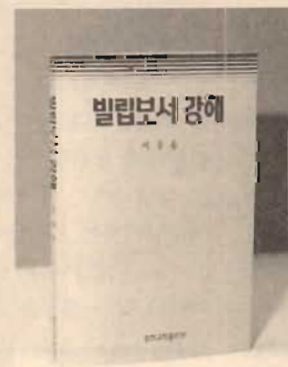
즐거운 우리집 가정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초등1부 찬송가부르기 대회 열어

초등1부는 지난 6월 10일 소석관 212호에서 추경희 선생의 사회로 반별 찬송가 대회를 개최하였다.

25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세 반씩 1조로 묶고 신입반까지 모두 11조가 참가하였는데, 학생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찬양하여 모두에게 상이 교루 돌아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탬버린, 멜로디언 등 악기가 동원되어 즐거움이 한층 더했다.

신간안내 《빌립보서강해》



충현교회 출판부는 이종운 위임목사가 지난 88년 5월부터 89년 3월까지 주일 저녁예배 때 해 온 설교를 모아 정리하여 《빌립보서 강해》를 발간하였다.

국판 크기의 이 책에는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연합”, “기도의 중요성” 등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 다락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과 제6계명

성경 : 마5 : 21~26

요절 : 살인하지 말지니라(출20 : 13)

찬송 : 278, 373

(60문~66문은 가정의 달을 기해 제8과와 제9과로 이미 게재됨.)

제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제68문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입니다.

제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입니다.

설 명

살인은 죄악입니다. 직접 살인이든지 간접살인이든지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미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분노를 품는 행동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존중의 인식에 점점 사라지고 게릴라처럼 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질 문

1.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이며,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창9 : 5, 6; 요10 : 18)?
2. 형제 미망, 불화도, 살인에 해당합니까?(마5 : 21~26)? 왜 그렇습니까?
3. 눅10 : 25~37을 읽으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4. 이기주의, 탐욕, 무관심 등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나는 관용할 것이 있습니까?